

2006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메시지 11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

성경: 고전 12:26-27, 고후 11:28-29, 골 2:19, 롬 12:4-5, 15, 빌 1:8

- I.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영적 체험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고전 12:26-27, 고후 11:28-29.
- II.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은 그리스도를 누림에서 온다—골 2:16-19.
 - A. 우리가 우리의 음식과 음료와 호흡으로 누리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분은 몸의 머리이시다—고전 10:3-4, 요 20:22, 골 1:18, 2:19.
 1.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실상 머리이신 그분의 어떠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머리이신 그분을 붙드는 것이다—10, 16-17, 19 절.
 2. 그분이 주관적으로나 체험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다—엡 3:8, 17, 4:15.
 - B.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몸을 의식하게 하신다—골 2:19.
 - C.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시라는 것을 더욱더 체험적으로 깨달을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몸을 의식하게 하고 몸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 D.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몸을 의식하게 하시는 머리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머리이신 그분을 붙든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16-19 절.
- III.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각이다—골 3:4, 15, 롬 8:2, 6, 10-11, 12:4-5.
 - A.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다—골 3:4, 2:19.
 1.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이 생명을 알 수 없다—마 16:24, 고전 2:14, 3:1-3, 12:12-27, 엡 4:13-16.
 2. 성경과 우리의 체험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지만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요일 5:11-12, 롬 12:4-5.
 3.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몸과 결합되거나 몸과 교통을 가질 때, 그의 생명은 몸의 생명이고 몸의 생명은 그의 생명이다—요일 1:1-3.
 4. 이 생명은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롬 8:10, 12:4-5.

- B.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에 관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감각으로 시작해야 한다—8:6.
 - 1. 이 감각은 하나님의 영에서부터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생긴다—2, 10 절.
 - 2.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거듭난 영도 또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6, 16 절, 고후 2:13.
 - 3. 이러한 감각은 생명의 감각이라 불리며,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이다—롬 12:15, 고전 12:26-27.
 - C. 우리가 이 감각을 훈련하면 이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몸에 관련된 것들을 의식하게 할 것이다—롬 12:15.
 - D. 우리가 이 감각을 계발한다면 이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몸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간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E. 우리가 이 감각을 자주 훈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관심한다면 이 감각은 몸의 감각이 될 것이다—고후 11:28-29.
 - F.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특정한 일을 사랑하므로 우리의 내적 감각은 억눌려 있다. 이것은 몸 안에 있는 존재인 우리의 감각이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 안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롬 12:4-5.
- IV.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이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도 우주적이며, 몸의 감각도 우주적이다—고전 12:26-27, 고후 11:28-29.**
- A. 일단 신성한 생명과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우주적인 감각—몸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롬 8:2, 10-11, 12:4-5, 15.
 - B. 몸의 감각은 우주적인 것이지만, 이 감각은 우리 자신의 느낌들과 관점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제한을 받아왔다—잠 14:10, 고후 6:11-13.
 - C. 주님께서 파쇄하시어 우리의 자아에서 구출됨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몸의 감각이 우주적임을 발견할 것이다—11:28-29.
 - D. 우리에게 몸의 감각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과 동일화되어 동일한 어려움과 축복을 느낄 것이다—고전 12:26-27.
- V.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은 우리의 생각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골 2:18, 3:2, 롬 12:2-3, 엡 4:23.**
- A. 우리의 생각의 구조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에 대한 합당하고도 철저한 인식이 있을 때에는 생각의 구조가 정상적이다.
 - B.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공통적인 인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롬 12:4-5, 엡 4:22-24.
- VI.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몸의 의식을 가져야 하며 몸을 위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롬 12:15, 고후 11:28-29.**
- A. 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몸을 의식해야 한다—고전 12:26-27.
 - B. 바울은 교회를 관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속부분들을 자기 자신의 속부분들로 취했다—빌 1:8.
 - 1.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기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했다—참조 행 9:4-5.
 - 2. 몸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느낌이 몸을 위하는 바울의 느낌이 되었다.
 - 3. 바울과같이 우리도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한다.
 - C.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을 가지고 몸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몸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규칙으로 취할 것이다—엡 4:15-16.

그리스도의 몸의 느낌을 주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존중함

- I.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반드시 몸에 대한 합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몸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 유일한 문제는 몸을 알지 못하고 몸을 관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주의하고 몸을 관심한다면 문제들이 없을 것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소요를 야기하는 문제들, 영문판 35 쪽).
- II.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몸을 보는 것에 달려 있다.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선악 시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이 몸에 속한 것이냐 몸에 속한 것이 아니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반드시 최대한도로 몸을 의식해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이다. 그러나 오늘 참으로 몸을 관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30 쪽).
- III. “우리는 몸을 위해 여기에 있다. 몸의 후원 없이, 회복의 후원 없이는 지방 교회들을 실행할 길이 없다. 만약 우리가 지방교회 생활을 하면서 몸의 조망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지방 교회는 지방 종파가 될 것이다.” (35 쪽).
- IV.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며 몸은 단지 하나의 지방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 교회는 ‘지방적인 몸’이 아니다. 만약 그 지방 교회가 ‘지방적인 몸’이라면 그것은 지방 종파가 된다.” (29 쪽).
- V. “사역과, 회복 안의 많은 교회들은 분열적인 어떤 사람들을 격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열적인 그러한 사람들과 야합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몸의 느낌을 무시한 것이다.” (29 쪽).
- VI. “로마서 14 장의 원칙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로마서 16 장 17 절에 의하면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몸에서 격리된,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문제이다. 만약 어떤 지방 교회가 몸을 극도로 거스른 어떤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명백히 그 지방 교회는 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며 몸과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몸을 돌아보아야 한다.” (30-31 쪽).
- VII. “회복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몸과 매우 큰 관계가 있는 것이다...만약 그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징계하지 않았다면 몸은 반드시 그 지방 교회에게 물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잘못된 것이며 몸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31 쪽).
- VIII.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몸을 거스르는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몸을 알아야 하고 몸을 신뢰해야 한다...우리는 교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관찰을 주의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그 많은 교회들의 주의를 제쳐두고 스스로 그 상황을 조사하려 한다면, 이것은 몸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는 몸을 존중하는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가?” (32 쪽)
- IX. “회복은 몸을 위한 것이지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떤 개별적인 지방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몸이, 회복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문제들은 다 몸을 보는 것이 부족하고 몸을 관심하는 것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몸을 존중해야 한다.” (35 쪽).